



서울신라로타리클럽 금회기 창립 30주년 맞으며 새로운 도약과 발전 모색



서울신라RC 회장 박성호



서울신라로타리클럽은 1986년 창립되어 지금까지 2042차 주회가 있었으며 내년 2월에는 창립 30주년을 맞습니다.

1992년에는 제2570지구 일본 신사야마 로타리클럽과 자매 결연을 맺어 지금까지 매년 우리나라와 일본을 차례로 오고 가며 문화교류와 친선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하남에 장애자 30여명을 돌보고 있는 “소망의 집”에 매년 성금과 의류 등 생필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생을 선발, 초청하여 학기 때마다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주회는 월3회입니다. 첫째 셋째주, 수요일은 아침주회로 회원들 상호간 뜻있는 의견소통 클럽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연사 초청강연 등으로 진행합니다. 넷째 주에는 저녁에 직장주회 또는 다양한 행사 등으로 맛있는 음식점과 담소를 나누며 회원 간 우정을 다져 나갑니다. 금년부터는 회원 간 우정을 더 돈독히 하고 신입회원을 영입 하기 위하여 취미활동, 여행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2017-18년 활동 계획

1. 재단기부 및 회원증강
 - PHF 5구좌 이상, 봉사의 인 5구좌 이상, 회원증강 3명 이상 계획
2. 친목도모와 회원증강을 위한 각종 행사 계획
 - 금년 가을~겨울에 특별한 행사와 여행 추진
3. 더 활발한 봉사활동 추진
 - 더욱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 창립30주년 기념사업



서울코암로타리클럽 “Go Together KOAM”, 창립 10주년 맞는 즐겁고 건강한 모임



서울코암RC 회장 이영준

2007년 4월 14일 창립한 서울코암 로타리클럽은 햇수로 10년을 맞이한 로타리 클럽으로 지난 2017년 4월 19일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코암’의 뜻이 Korea America 의 준말로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로타리 정신을 중심으로 모여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저희 클럽 평균 나이는 47세이고 주회 때도 격 없이 모여 명사 강의를 듣기도 하고 친목을 중심으로 맛집 체험을 하고 지역별로 소모임도 활성화 되어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암은 “Go Together KOAM” 이라는 기치 아래 서로를 즐기고 봉사를 즐기고 참여를 즐기는 건강한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 2017-18년 활동 계획

1. 회원증강
 - 회원의 관리를 통해 기존 회원을 유지하고, 탈회 회원의 재영입과 새로운 신입회원의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5명 증강 목표
2. 회원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위해 국내, 해외 리트리트 실시
 -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기찬 클럽 분위기 도모
3. 직장주회 개최
 - 회원 초청의 직장주회를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의 직업에 대한 이해와 우의를 도모 (년 2회 예정)
4. 봉사활동 계획
 - 1) 애란원(년 2회 실시)
 - 내용 : 미혼으로 임신, 출산하여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과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지원
 - 기부 : 지원금과 지원물품 및 바자회 수익금 전액
 - 2) 사랑의 달팽이
 - 내용 : 난청 어린이 1인을 매칭하여 인공와우 수술비 지원
 - 기부 : 수술 치료비용 5백만원 기부 및 격려